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를 중심으로

송 관 재

이 재 창

홍 영 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전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352명), 일반인(255명), 지체장애인(22명), 윤락녀(16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차별의 정도를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과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오점보유자들 중 약물중독자, 윤락녀, 전과자 등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도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멀게 지각된 오점보유자들이었다. 오점보유자들을 가시성과 통제성의 차원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 및 대학생의 경우 가시성과 통제성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비가시적이고 통제적인 오점유형에 대해 거리감을 가장 멀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 가시성과 통제성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윤락녀들은 오점의 차원에 관계없이 약물중독자나 정신지체인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해 거리감을 가장 멀게 지각하였다. 응답자들에게 각 오점보유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전과자, 정신지체인, 윤락녀 등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들과 오점보유자들과의 자존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응답자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점보유자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심리적 적응기제를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집단간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Dovidio & Gaertner, 1986).
집단간 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
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에 관한 것이었다. 우
리가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
고 있으며 그러한 고정관념이 집단구성원에 대한 행

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여 왔다.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에 대해 부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이 부적 감정이 근거가 없거나 과장되어 있을 때 이를 편견으로 간주하여(Ashmore & Del Boca, 1976) 편견과 차별이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왔다. 고정관념이나 편견, 차별에 관한 이들 연구들에서 주로 언급되어져 왔던 집단범주는 인종(Brigham, 1974; Hartsough & Fontana, 1970)이나 성(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지역집단(김종철 외, 1991), 직업계층(김채운, 1984) 등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지난 수년간 지역집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한국심리학회, 1988).

인종이나 성, 지역, 그리고 직업과 같은 사회적 범주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들 사회집단간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범주이외에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고,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사회적 집단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와 같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약물중독자, 횡령범 등과 같은 규범위반자, 지나치게 뚱뚱한(overweight) 사람이나 동성연애자와 같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정상'이라 일컫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의 적응과 대면적 상호작용에서 타인들로부터 무시되고 있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

한 예로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disability)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다(Wood, 1980). 이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람들은 그들의 생물학적인 열등성(biological inferiority)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는 그들의 생물학적인 한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Meyerson, 1988).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모든 건축구조물이나 작업상황 등이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disabling environment)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적응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Hahn, 1988).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른 시각은 그들이 소수집단(minority group)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Dworkin & Dworkin, 1976). 실제로 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소수집단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심리적 제약들은 그들이 소수집단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3천 6백만명)은 흑인(2천 7백만명)이나 스페인계 미국인(1천 7백만명)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장애인들은 한 사회내에서 우세한 다수집단(dominant majority)에 비해 소수이고 그들 자신이 소수집단이라는 집단의 의식도 약하다(장애인들의 45%만이 그들 자신을 소수집단으로 인식함: Hill, et al., 1986). 장애인들의 문제를 소수집단이라는 시각으로만 설명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정상인들 보다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똑같거나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r & Major, 1989).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그들보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Burden & Parish, 1983). 장애인들이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Taylor, Wood, & Lichtman, 1983; Lerner, 1980).

사회적 오점

장애(disability)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사회

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특정 속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특성을 사회적 오점(social stigma)이라고 한다(Goffman, 1963). 오점(汚點)이란 회람인들이 도덕적으로 이해적이거나 부정적인 점이 노출되도록 만드는 낙인 혹은 신체적 기호를 칭하기 위해 처음 창안된 용어인데, 현재에는 어떤 특정 속성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는 속성을 지칭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대면적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오랜 연구를 해왔던 사회학자 Goffman은 그의 저서 '오점'에서 오점의 세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에는 신체적 기형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여러 종류의 신체적 장애가 해당된다. 둘째는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으로써 정신병, 알콜중독, 동성애, 범죄, 자살기도, 급진적인 정치성향, 실업 등의 경력에서 추정되는 개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품성들이 그 예가 된다. 세째는 가계를 따라 전달되며 한 가족 모든 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인종, 민족, 그리고 종교와 같은 종족 오점(tribal stigma)이 있다.

오점보유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경제적인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고 대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흑인은 백인들보다 더 적은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받으며 수입도 낮다(U.S. Government, 1978). 또한 신체적으로 비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로부터 더 적은 관심을 받으며(Kleck & Rubenstein, 1975),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Cash, Gillen, & Burns, 1977),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는다(Landy & Sigall, 1974). 특히 연청이나 곰보와 같이 얼굴이 기형인 사람은 신체적으로 비매력적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차별은 오점보유자들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다. 모든 사회가 각기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고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다. 특히 오점의 유형에 따라 문화권마다 보이는 일반인의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오점유형별로 일반인들의 편견의 내용과 차별의 정도를 살펴보고 그러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구성원간의 바람직한 관계형성과 올바른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나 고정관념, 신념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오점보유 집단 중에서 오점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정도가 달라진다. Shears와 Jensenma(1969)등은 학생들과 심리치료를 대상으로 맹인, 정신지체 등과 같은 10개의 다양한 오점유형을 제시해 주고 각 유형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감 측정치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해 본 결과 거리감을 멀게 지각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중요한 차원을 밝혀냈다. 그것들은 1) 조건의 가시성(visibility), 2) 상호작용과정에서의 방해정도, 3)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오점, 4) 반전가능성 예측(reversibility prognosis), 5) 무능력의 정도, 6)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다. Shears 등 이외에 사회적 오점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Freeman, 1961; Jones, Gottfried, & Owens, 1966; MacDonald & Hall, 1969; Northcraft, 1981)은 각기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점유형들의 차원을 분류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오점의 조건을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은 가시성(visibility)과 통제성(controllability)인 것으로 나타났다(Frable, Blackstone, & Scherbaum, 1990; Goffman, 1963; Jones et al., 1984).

오점의 가시성은 오점이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흑인이나 비만인과 같은 오점보유자들은 가시적인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윤락녀나 고아 등은 비가시적인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점의 통제성이란 오점이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Weiner et al, 1988). 비만인이나 전파자 등은 통제적인 오점을 지닌 사람들이고, 정신지체나 지체장애인은 통제할 수 없는 오점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러한 오점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오점보유자의 심리적 대응과정도 달라진다. 예컨대 통제적인 오점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의 오점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 인정할 것이다.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오점을 지닌 사람들은 오점에 기초한 부정적인 평가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태도도 오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오점을 지닌 사람들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오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비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더 많은 편견을 나타낸다(Rodin, Price, Sanchez, & McElligot, 1989). 통제할 수 있는 오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분노를 나타내며 그들을 무시하기까지 한다(Weiner et al., 1988). 오점의 가시성은 사람들의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점을 지니고 있지만 오점을 감출 수 있는 사람들은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Freeman & Kassebaum, 1956). 그러나 오점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더 배척당하며 대인간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Centers & Centers, 1963).

사회적 거리감

우리는 다양한 사회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사용해왔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한 개인이 특정 집단구성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면하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한 Bogardus(1925)는 사회적 거리를 사람들이 서로에 관하여 경험한 이해의 정도 또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의 상이한 정도라고 규정한다. Bogardus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각기 달리 정의하고 있는데, Westie(1959)는 사회적 거리를 상호작용의 어떤 영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허용하

는 정도 즉 선택적 상호작용의 정도라고 했고, Martin(1959)은 어떤 대상에 대한 우호적 비우호적 태도라고 정의하였으며, Laumann(1965)은 사회적 거리에 주관적인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이를 특정한 지위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자아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정의들은 사회적 거리감을 하나의 태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로 간주한 Triandis(1964)는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의 세가지 차원 즉 감정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는 특히 태도의 행동적 차원을 행동의도로 규정하고 행동의도의 차원성을 분석하여 사회적 거리감의 차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행동적 차원의 사회적 거리감은 선택적 상호작용에 관한 행동의도의 양적 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Triandis, 1971).

특정한 사회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측정은 Bogardus(1925)에 의해 인종집단을 준거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후 직업집단에 대한 측정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역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김혜숙, 1988; 나간채, 1991). 이들 연구자들은 주로 Thurstone이 개발한 기법과 유사한 방식의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마다 사용된 문항의 내용은 달랐는데 그 이유는 문항이 갖고 있는 의미수준의 타당성 때문이었다. 연구자들은 측정 대상에 따라 적절한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달리 선정하여 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의 하위차원과 관련해서 Westie(1952)는 4가지의 하위차원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위차원들은 1) 거주지의 근접성의 정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거리감, 2) 사회내의 위세와 권력의 차동적 지위들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측정되는 거리감, 3) 태도대상과 신체적인 교섭의 허용정도에 따라서 측정되는 물리적 거리감, 4)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태도 대상에 허용된 친근성의 정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사

회적 거리감 등이다.

오점보유자들의 자존감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나 사회속에서 오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나 고정관념, 신념 등을 갖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오점보유자들이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Taylor, Wood, & Lichtman, 1983; Lerner, 1980).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은 오점보유자들의 자기개념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점보유자들이 일반인들 보다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학자들은 자아개념의 발달에 있어서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혹은 거울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Cooley, 1956; Mead, 1934; Shrauger & Schoeneman, 1979). 이 견해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Cooley(1956)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크게 세가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쳐진 자신의 이미지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쳐진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평가, 셋째는 자부심과 같은 어떤 유형의 자기 감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자신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에 기초해 보면 오점보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표적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고 그 표적이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자기충족적 예언이 일어난다(Merton, 1948). 예컨대 학생이 학급에서 잘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선생님은 그 학생의 질문이나 도움에 대한 요청을 무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학생이 수행을 잘하는 것을 방해한다. 가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서 자신의 자아개념을 바꾼다(Darley & Fazio, 1986).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오점보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지각자들은 오점보유 집단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오점보유자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일치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Fazio, Effrein, & Falender, 1981). 반영된 평가관점과는 반대로 자기충족적 예언 관점은 오점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아개념은 단순히 자기지각과정에 의해 손상을 받는다(Bem, 1970).

오점보유자들이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은 자아개념은 환경과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이다(Gecas & Schwalbe, 1983). 이 관점은 앞의 두 관점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는데 두 관점에서는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존감은 수동적으로 획득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있는 행위들을 통해 획득하는 것이다(Franks & Marolla, 1976).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자신들이 능력있고 유능하다는 견해를 갖게 되며 자존감도 높아진다. 따라서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조건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효율성에 기초한 자존감의 견해에 따르면 오점보유자들은 그들의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기 때문에 오점보유자들이 아닌 사람들 보다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별은 사람들이 의도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오점보유자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만든다(Gecas & Schwalbe, 1983).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점보유자들은 일반인들 보다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점보유자들이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는 드물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Macoby & Jacklin, 1974). 또한 정신지체인(Gibbons, 1985)이나, 지체장애자(Burden & Parish, 1983), 발달적으로 혹은 학습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Johnson, Johnson, & Rynders, 1981)은 일반인들에 비해 일관되게 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오점보유자들이 일반인들 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elter, 1983; Willy & McCandless, 1973).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차별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그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다. 오점유형별로 일반인들의 편견을 사회적 거리감으로 서로 비교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한 오점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정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자존감을 측정하여 일반인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대학생과 일반인, 특정 오점보유자 들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대학생들은 서울시내 네개 대학교에서 표집한 352명(남자: 188명, 여자: 164명)이었으며, 일반인들은 255명(남자: 136명, 여자: 119명)이었다. 일반인의 경우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개인과제물로 설문지를

나누어주어 부모와 인터뷰하여 작성해 오도록 요청하였다. 이들의 직업으로는 주부(97명), 자영업(39명), 직장인(117명), 그리고 기타(17명)등이었다. 오점보유자들은 지체장애인(22명)과 윤락녀(16명)등이었다. 지체장애인은 재활병원을 내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윤락녀의 경우에는 보건소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

1)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두가지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하위차원중 하나는 태도대상과 신체적 교섭의 허용정도를 측정하는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태도대상에 허용된 친근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먼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Westie(1953)의 거리감 측정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을 본 연구에 사용하기 전에 각 문항의 척도치를 산출하기 위해 대학생 35명과 대학원생 37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문항의 척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먼저 나간채와 정근식(1988)이 직업계층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 중 각 문항의 척도치와 의미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17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태도의 측면중 어떠한 구체적 행동의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이들 문항들이 갖는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이후 35명의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들 각 문항이 나타내는 대인관계거리감의 정도를 11점 척도상에 표현하게 하여 각 문항의 척도치와 애매도를 고려하여 6문항을 골랐다. 각 문항의 척도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자존감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기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표 1. 사회적 거리감척도의 각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거리감	문	항	평 균	표준편차
신 체 적 거 리 감	나는 _____와 진정한 개인적 친구로써 지내고자 한다.		2.46	1.43
	나는 _____를 집의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손님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		4.05	1.58
	나는 _____를 내가 가끔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지내고자 한다.		5.35	1.72
	나는 _____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지내고자 한다.		7.05	1.61
	나는 _____와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는 사이로서 지내고자 한다.		8.43	1.77
	나는 _____와 길거리에서 만날 수는 있는 사이로서 지내고자 한다.		8.68	1.89
사 회 적 거 리 감	나는 _____를 여행의 동반자로 삼고자 한다.		1.89	1.24
	나는 _____와 옆자리에서 일하고자 한다.		3.89	1.24
	나는 _____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같은동에 살고자 한다.		4.62	1.87
	나는 _____가 시의회 의원 후보로 나섰을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		7.17	1.88
	나는 _____가 소속한 친목회에는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		10.3	1.29
	나는 내가 속해있는 사교모임에 _____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10.4	1.26

는데 개인의 자기가치나 자기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2였다.

결 과

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측정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과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은 6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에 문항의 척도치를 곱한 다음 하나의 태도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이 각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이 나타내는 태

도에 동의한다면 '그렇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그렇다에 응답하면 1점, 아니오에 응답하면 0점으로 계산하여 거리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는 것이다.

표 2에 제시된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들의 경우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을 가장 멀게 지각한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은 약물중독자(14.30), 윤락녀(16.85), 전과자(18.35),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20.03)의 순이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약물중독자(14.55), 윤락녀(16.06), 전과자(19.11), 정신지체인(20.70)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경우 약물중독자와 윤락녀, 전과자들에 대해 가장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을 응답자의 개인특성변인별로 살펴보면 남녀별로 거리감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무의탁노인이었고, 다른 오점

표 2. 조사대상자별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오점 구분		지체 장애인	작은키	불임 여성	정신 지체인	약물 중독자	비만인	이혼녀	시청각 장애인	전과자	무의탁 노인	고아	윤락녀
신체적	대학생	22.69 (8.27)	20.03 (9.15)	24.48 (9.12)	20.69 (10.58)	14.30 (11.50)	25.47 (9.13)	24.84 (9.08)	24.32 (9.47)	18.35 (12.32)	24.93 (9.62)	26.24 (8.69)	16.85 (12.19)
	일반인	22.45 (8.52)	23.81 (9.13)	24.99 (8.99)	20.70 (10.58)	14.55 (10.34)	24.96 (9.68)	25.22 (9.15)	24.52 (9.52)	19.11 (14.40)	25.48 (8.28)	26.20 (8.87)	16.06 (11.77)
	지체 장애인	22.44 (8.67)	22.48 (11.21)	21.43 (9.87)	20.92 (10.77)	11.76 (12.49)	22.47 (10.15)	24.53 (8.83)	22.11 (10.15)	17.83 (13.40)	22.76 (10.99)	22.48 (12.40)	14.66 (13.71)
	윤락녀	18.05 (9.59)	21.22 (10.57)	22.61 (13.33)	15.28 (10.68)	10.46 (8.53)	20.27 (13.17)	21.93 (13.98)	13.49 (11.66)	17.39 (13.46)	21.20 (12.98)	21.93 (13.25)	21.92 (12.07)
사회적	대학생	30.77 (7.79)	33.86 (57.05)	34.34 (6.97)	19.43 (12.73)	10.38 (12.14)	32.54 (8.58)	33.21 (8.29)	29.46 (10.46)	17.71 (15.36)	28.23 (10.90)	34.60 (7.04)	17.19 (14.66)
	일반인	30.55 (9.98)	34.33 (6.78)	34.78 (6.71)	19.16 (13.02)	9.21 (11.74)	32.82 (8.38)	30.84 (10.47)	26.12 (11.74)	17.33 (15.12)	28.72 (10.29)	35.19 (5.93)	13.82 (13.75)
	지체 장애인	30.67 (10.66)	28.38 (10.81)	29.65 (9.58)	20.46 (12.14)	13.13 (9.24)	24.52 (11.60)	24.36 (12.36)	24.65 (11.17)	18.28 (13.10)	26.50 (10.89)	29.01 (13.42)	17.22 (11.46)
	윤락녀	23.36 (11.21)	29.77 (8.30)	29.57 (11.29)	15.09 (8.93)	12.45 (9.64)	24.34 (11.96)	30.28 (9.48)	20.05 (10.19)	18.39 (13.60)	24.41 (10.16)	27.98 (10.91)	24.38 (11.29)
전체	대학생	53.35 (12.84)	23.81 (9.13)	58.78 (12.17)	39.94 (19.56)	24.72 (19.40)	58.00 (13.51)	59.09 (13.98)	53.73 (16.02)	36.00 (23.99)	53.27 (16.39)	60.81 (11.88)	34.10 (23.76)
	일반인	52.79 (14.54)	58.03 (11.76)	59.87 (11.47)	39.70 (19.77)	23.71 (17.94)	57.82 (13.20)	56.07 (15.34)	50.71 (16.43)	36.46 (22.66)	54.29 (13.81)	61.37 (10.46)	30.06 (22.11)
	지체 장애인	52.87 (13.83)	51.01 (14.18)	51.09 (13.39)	40.95 (17.35)	24.89 (17.64)	46.98 (16.66)	48.88 (18.89)	46.73 (16.40)	36.09 (22.81)	49.26 (17.40)	51.49 (19.56)	31.70 (21.28)
	윤락녀	43.87 (12.76)	51.11 (15.83)	52.35 (22.52)	31.54 (14.05)	22.11 (10.98)	44.61 (21.68)	51.38 (18.92)	33.26 (17.14)	35.78 (22.53)	44.94 (18.63)	52.05 (19.69)	46.10 (20.01)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들이 무의탁노인에 대해 여자들 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t_{(683)} =$

-2.64, $p < .01$). 피험자의 결혼유무에 따라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정신지체인($t_{(667)} = 1.06$, $p < .05$), 비만인($t_{(684)} = 1.67$, $p < .09$),

이혼녀($t_{(679)} = 2.26, p < .05$), 윤락녀($t_{(680)} = 2.89, p < .01$) 등에 대해서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해당 오점보유자들을 더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결혼유무에 따라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기혼자들이 미혼자들 보다 오점보유자들을 더 멀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 정도에 따라서는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대인간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들의 자원봉사 경험유무에 따라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았다. 자원봉사 경험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기타 주요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자원봉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불임여성($t_{(667)} = -2.08, p < .05$)을 제외하고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신체적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임여성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보다 그들을 더 멀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오점보유자에 속하는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들의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신체적 거리감의 지각정도를 살펴보았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약물중독(11.76), 윤락녀(14.66), 전과자(17.83) 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고, 윤락녀의 경우 약물중독(10.46), 시청각장애인(13.49), 정신지체인(15.28)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들이 자신과 같은 오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의 지각과 다른 조사대상자들의 그들에 대한 거리감의 지각을 비교해 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들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 윤락녀들과 다른 조사대상자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락녀들은 자신과 같은 다른 윤락녀들에 대해서 다른 조사대상자 집단과 비교하여 신체적 거리감을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3,677)} = 2.25, p < .08$).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은 6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의 경우와 같이 각 문항에 대

한 응답에 문항의 척도치를 곱한 다음 하나의 태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별로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정도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약물중독자(10.38), 윤락녀(17.19), 전과자(17.71)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약물중독자(9.21), 윤락녀(13.82), 전과자(17.33)의 순으로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응답자의 개인특성 변인별로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성별의 경우 약물중독자,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전과자, 무의탁노인, 윤락녀 등에 대한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혼녀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 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하였고($t_{(667)} = -2.28, p < .05$) 약물중독자($t_{(679)} = 2.26, p < .05$), 시청각장애인($t_{(672)} = 2.04, p < .05$), 전과자($t_{(676)} = 2.93, p < .01$), 무의탁노인($t_{(678)} = 3.22, p < .001$), 윤락녀($t_{(678)} = 3.93, p < .001$)등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하였다. 응답자의 결혼유무에 따라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혼녀($t_{(667)} = 4.58, p < .001$), 시청각장애인($t_{(672)} = 3.52, p < .001$) 등에 대해서 기혼자가 미혼자들 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하였고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에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 및 직장동료 등 주변인물 중에서 오점보유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였는데 주변에 오점보유자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지체장애인($t_{(343)} = 3.24, p < .001$), 정신지체인($t_{(344)} = 3.34, p < .01$), 키가 작은 사람($t_{(343)} = 1.97, p < .05$), 약물중독자($t_{(348)} = 2.21, p < .05$), 이혼녀($t_{(350)} = 2.80, p < .01$), 시청각장애인($t_{(347)} = 2.13, p < .05$), 전과자($t_{(346)} = 3.69, p < .001$)등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주변인물 중 오점보유자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주변인물 중에 오점보유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정신지체인, 키가 작은 사람, 약물중독자,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전과자 등과 같은 오점보유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을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점보유자들과의 대인간 접촉이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중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전체 응답자의 32.3%)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해본 결과 정신지체인(21.19 대 18.18, $t_{(659)} = 2.84, p < .01$)에 대한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오점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지체인들에 대한 자원봉사 경험만이 그들에 대한 거리감의 지각에 영향을 미쳤는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보다 정신지체인을 더 가깝게 지각하였다.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들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정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약물중독자(13.13), 윤락녀(17.22), 전과자(18.28) 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고 윤락녀의 경우에는 약물중독자(12.45), 정신지체인(15.09), 전과자(18.39) 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지체장애인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은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았으나 윤락녀들은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윤락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는 대학생이나 일반인, 지체장애인들보다 윤락녀들이 거리감을 더 가깝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F_{(3, 674)} = 6.21, p < .001$).

오점유형들을 가시성과 통제성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포함된 오점유형들 중 가시적인 오점에 속하는 오점유형들은 지체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 정신지체인, 비만인, 시청각장애인 등이었고, 나머지 오점유형들은 비가시적인 오점에 속하는 유형들이었다. 통제성의 경우 통제적인 오점에 속하는 오점유형들은 약물

중독자, 비만인, 이혼녀, 전과자, 윤락녀 등이었고, 다른 오점유형들은 비통제적인 오점에 속하는 유형들이었다. 대학생들의 경우 가시성과 통제성을 기준으로 변량분석한 결과 가시성의 주효과($F_{(1,320)} = 193.60, p < .001$), 통제성의 주효과($F_{(1,320)} = 234.79, p < .001$), 가시성 $\times$ 통제성 상호작용 효과($F_{(1,320)} = 569.35,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일반인들과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시성과 통제성, 가시성 및 통제성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응답자들은 가시적인 오점유형들과 비통제적인 오점유형들 보다는 비가시적인 오점유형들과 통제적인 오점유형들을 더 멀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 가시성($F_{(1,16)} = 0.55, ns$)과 통제성의 주효과($F_{(1,16)} = 0.67, ns$)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으나 가시성 및 통제성의 상호작용효과($F_{(1,16)} = 5.80,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윤락녀들이 비가시적이고 통제적인 오점유형에 속하는 약물중독자와 가시적이고 비통제적인 오점유형에 속하는 정신지체인에 대해 특히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기 때문이다.

2.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차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오점유형으로 선정된 오점보유자들은 사전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실제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각 오점보유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9점 척도 상에서 나타내게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 오점유형들 중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응한 오점유형은 전과자(8.10), 정신지체인(8.03), 윤락녀(7.67)등의 순이었다(표 3). 일반인들의 경우 전과자(7.86), 정신지체인(7.56), 윤락녀(7.55)등의 순으로 대학생들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전과자(7.52), 윤락녀(6.76), 약물중독자(6.67)등의 순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윤락녀의 경우에는 전과자(8.07), 약물중독자(7.50), 정신

표 3. 조사대상자별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차별의 지각정도

	대학생	일반인	지체장애인	윤락녀	F값
전과자	8.10	7.86	7.52	8.07	$F_{(3,697)} = 1.75$
정신지체인	8.03	7.56	6.29	7.13	$F_{(3,699)} = 12.20^{**}$
윤락녀	7.67	7.55	6.76	7.17	$F_{(3,698)} = 2.41$
지체장애인	7.55	7.10	5.48	6.67	$F_{(3,697)} = 13.14^{**}$
약물중독자	7.14	7.06	6.67	7.50	$F_{(3,698)} = 0.96$
시청각장애인	6.61	6.53	5.67	6.07	$F_{(3,696)} = 2.42$
무의탁노인	6.37	6.02	5.95	6.17	$F_{(3,697)} = 1.94$
고아	5.71	5.19	5.14	5.80	$F_{(3,695)} = 4.39^*$
이혼녀	4.91	4.74	4.24	4.83	$F_{(3,694)} = 1.07$
비만인	4.64	3.83	4.43	3.80	$F_{(3,696)} = 9.79^{**}$
키작은사람	4.46	3.87	4.29	4.07	$F_{(3,691)} = 4.87^*$
불임여성	4.37	3.53	3.66	4.26	$F_{(3,698)} = 8.94^*$

* $p < .01$, ** $p < .001$

지체인(7.13)등의 순으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윤락녀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다른 응답자들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별로 오점대상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정도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오점유형은 약물중독자, 이혼녀, 윤락녀, 무의탁노인 등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받는 차별의 정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오점보유자들을 기준으로 응답자별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차별을 많이 지각한 오점유형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다른 응답자들보다 오점보유자들의 차별을 더 크게 지각하였다. 대학생들은 지체장애인, 키가 작은 사람, 불임여성, 정신지체인,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비만인, 윤락녀, 무의탁노인, 전과자 등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정도를 다른 응답자들보다 더 크게 지각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지체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을 정도를 가장 적게 지각하였고, 윤락녀들은 약물중독자와 고아 등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정

도를 일반인들보다 더 높게 지각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1점 척도 상에서 나타내게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다”에 응답하였고(2.68) 윤락녀들은 대학생들보다 우리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다(4.97). “우리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생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F_{(3, 703)} = 3.09, p < .05$).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일반인보다 지체장애인이거나 윤락녀들이 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F_{(3, 703)} = 6.75, p < .001$).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100점을 만점으로 나타내게 하였는데 응답자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수준에 대한 지각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37.82 대 35.03,

$t_{(696)} = 2.03, p < .05$).

3. 오점보유자들의 자존감

오점보유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제약들은 오점보유자들의 자기개념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지체장애인,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존감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_{(2,291)} = 1.23, ns$). 대학생들(39.81)의 경우에도 지체장애인(40.53)이나 윤락녀들(39.12)과 비교해서 자존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모든 사회에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과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먼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의 경우 대학생이나 일반인 모두 오점보유자들 중 가장 멀게 느낀 오점보유자들은 약물중독자와 윤락녀, 전과자 등이었다.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은 태도대상과의 신체적 교섭의 허용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약물중독자, 윤락녀, 전과자 등의 오점보유자들과 대인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며 그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개인특성 변인들이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하고 성이나 결혼유무, 학력, 재산정도,

자원봉사 경험 등을 본 연구의 개인특성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성별의 경우 무의탁노인에 대한 신체적 거리감을 제외하고 남녀간에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유무의 경우에는 정신지체인, 비만인, 이혼녀, 윤락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들 오점유형들에 대해 기혼자가 미혼자들보다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오점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로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들을 포함시켰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약물중독자, 윤락녀, 전과자 등에 대해서 다른 오점유형의 사람들보다 신체적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그 결과가 달랐는데 그들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 오점유형은 약물중독, 시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등이었다. 특히 일반인들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 오점유형에 속하는 윤락녀들은 자신이 속한 윤락녀에 대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지 않았다.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약물중독자와 윤락녀, 전과자 등에 대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오점보유자들은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에서도 멀게 지각된 오점보유자들이다. 이는 오점보유자들 중 약물중독자와 윤락녀, 전과자 등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접촉 및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가장 꺼려하는 오점보유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의 개인특성 변인별로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성별의 경우에는 약물중독자,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전과자, 무의탁노인, 윤락녀 등에 대해서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 지각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의 지각에 있어서는 무의탁노인의 경우만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서는 다양한 오점유형들에 대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결과에 기초해 보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점보유자들을 더

꺼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오점보유자들과 대인간 접촉(interpersonal contact)은 접촉 대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erek & Capitanio, 1996). 본 연구에서는 오점보유자들과의 대인간 접촉을 주변인물 중 오점보유자의 유무와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주변인물의 경우 응답자들에게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물 중 오점보유자들이 있는지를 응답하게 한 다음 주변인물 중 오점보유자들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간에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거리감 지각이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에는 오점보유자들 중 정신지체인과 약물중독자, 전과자, 지체장애인, 키 작은 사람, 이혼녀, 시·청각 장애인 등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응답자들은 이들 오점보유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없는 응답자들 보다 해당 오점보유자들을 더 가깝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점보유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보다 해당 오점보유자들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라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대인간 사회적 거리감 지각에서 정신지체인에 대해서만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보다 정신지체인들을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자원봉사가 오점보유자들 중 주로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4명중 1명 꼴로 적었고 자원봉사가 주로 종교단체에서 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들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지각정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약물중독자, 윤락녀, 전과자의 순으로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거리감 지

각과 달랐는데 그들은 약물중독자, 정신지체인, 전과자 등의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특히 윤락녀들은 지체장애인과 달리 자신과 같은 오점보유자인 윤락녀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 보다 거리감을 가깝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점의 유형은 여러 가지 조건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중요한 두가지 조건은 오점의 가시성과 통제성이다. 오점의 가시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오점보유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오점을 감출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대인관계나 인상형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시적인 오점보유자들을 더 멀리하며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즉 가시적인 오점을 보유한 사람보다는 비가시적인 오점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대해 거리감을 더 멀게 지각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대인관계 상황이 아니라 오점유형을 질문지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시성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점의 다른 조건은 통제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점보유자들의 오점이 통제적이지 못할 때 보다 통제적일 때 통제적인 오점을 보유한 사람들을 더 비난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은 비통제적인 오점을 보유한 사람들보다는 통제적인 오점을 보유한 사람들을 더 멀리하였다. 특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결함인 윤락녀, 약물중독자, 전과자 등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가시성과 통제성의 차원에 기초하여 변량분석을 하였을 때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제성의 조건이 가시성의 조건보다 더 효과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오점의 가시성 보다 통제성이 응답자들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거리감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 중 지체장애인과 윤락녀에게 있어 가시성과 통제성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유사하게 가시성과 통제성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윤락녀의 경우 가시성의 주효과와 통제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시성과 통제성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윤락녀의 경우 어떤 유형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해 거리감을 지각하기 보다는 특정 유형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윤락녀들이 가장 거리감을 멀게 지각한 오점유형은 약물중독자와 정신지체인이었는데 약물중독자는 비가시적이면서 통제적인 오점유형이고 정신지체인은 가시적이면서 비통제적인 오점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차별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은 전과자와 정신지체인, 윤락녀 등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약물중독자들에 대해 거리감을 멀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다른 오점유형에 비해 높지 않았다. 차별에 대한 지각정도를 응답자별로 분류해 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 다른 응답자들 보다 오점보유자들이 사회에서 더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윤락녀들은 약물중독자와 고아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우리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은 각기 다른 이념적 신념을 갖고 있다. 예컨대 세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이념적 신념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공정성의 지각이 응답자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별로 우리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체장애인이거나 윤

락녀와 같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오점보유자들과 일반인들간에는 세상이 공정하다라는 이념적 신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못하고 편파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응답자들에게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공정성의 지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1점 만점에 평균이 2.54이었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낮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점보유자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은 일반인들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보면 일반인들과 오점보유자들간에는 자존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오점보유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오점보유자들이 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적응적인 기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점보유자들은 적절한 준거집단과의 사회비교과정이나 자기방어적인 귀인과정 등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점보유자들을 선정하여 그들과 일반인들의 거리감 및 차별에 대한 지각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의 내용 때문에 오점보유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많은 수의 오점보유자들을 표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오점보유자들 중 일부는 용어 사용에 따라 응답자들이 받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지체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인과 절름발이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보다는 절름발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한 오점 유형에 대한 용어간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철, 최종집 외. (1991). 지역감정 연구. 학민사.
- 김채윤. (1984). 한국사회 계층론 40년. 한국 사회학, 제 18집(여름호), 71-89.
- 김혜숙. (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 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1988년도 춘계심포지움.
- 나간채. (1991).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감. 지역감정연구(pp. 191-211). 학민사.
- 나간채, 정근식. (1988). 직업계층간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109-133.
- 한국심리학회 편. (1988).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성원사.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D. A. Katz(Ed.). *Toward the elimination of racism*. New York: Pergamon Press.
- Bern, D. J.(1970). *Beliefs, attitudes, and human affairs*. Belmont, CA: Brooks/Cole.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In Kerry Thomas(Ed.) *Attitudes and Behavior*(pp. 87-97). London: Penguin Books Ltd.
- Brigham, J. C. (1974). Views of black and white children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42, 144-158.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al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9.
- Burden, P. R., & Parish, T. S. (1983). Exceptional and normal children's descriptions of themselves. *Education*, 104, 204-205.
- Centers, L., & Cernters, R. (1963). Peer group attitudes toward the amputee child.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 127-132.
- Cooley, C. H.(1956).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Crosby, F. (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vidio, J. F., & Gaertner, S. L. (Eds.). (1986).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workin, A., & Dworkin, R. (Eds.). (1976). *The minority report*. New York: Praeger.
- Erikson, E. M.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azio, R. H., Effrein, E. A., & Falender, V. J. (1981). Self-perceptions following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232-242.
- Frable, D. E. S., Blackstone, T., Scherbaum, C. (1990). Marginal and mindful: Deviant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40-149.
- Franks, D. D., & Marolla, J. 1976). Efficacious action and social approval as interacting dimensions of self-esteem: A tentative formulation through construct validation. *Sociometry*, 39, 324-341.
- Freeman, H. E. (1961).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mong relatives of former pati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59-66.
- Freeman, H., Kasenbaum, G. (1956). The illiterate in America, *Social Forces*,
- Gecas, V., & Schwalbe, M. L. (1983). Beyond the looking-glass self: Social structure and efficacy-based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77-88.
- Gibbons, F. X. (1985).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 391-404.
- Goffman, E.(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offman, I. (1963). *Stigma*. New York: Simon & Shuster, Inc.
- Hahn, M. (1988). The politics of physical differences: Disability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39-47.
- Hartsough, W. R., & Fontana, A. F. (1970). Persistence of ethnic stereotype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sitive and negative stereotyping for association preferences. *Psychological Reports*, 27, 723-731.
- Herek, G. M., & Capitanio, J. P. (1996). "Some of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2, No. 4, 412-424.
- Hill, N., Mehnert, T., Taylor, T., Kagey, M., Leizhenko, S., et al. (1986). *The ICD survey of disabled Americans: Bringing disabled Americans into the mainstream*. New York :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Disabled.
- Hoelter, J. W. (1983). Factorial invariance and self-esteem: Reassessing race and sex differences. *Social Forces*, 61, 834-846.
- Johnson, R. T., Johnson, D. W., & Rynders, J. (1981). Effect of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experiences on self-esteem of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8, 31-34.
- Jones, E. E., Favina, A., Hastorf, A. H., Markus, H., Miller, D. T., & Scott, R. A.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Jones, R. L., Gottfried, N. W., & Owens, A. (1966). The social distance of the exceptional : A study at the high school level. *Exceptional children*, 32, 551-556.
- Laumann, F.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July), 26-36.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 Plenum.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J. W. (1959). *Adolescent social distance toward occupational status*.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June), Michigan: U. M. I.
- Martin, J., Scully, M., & Levitt, B. (1990). Injustice and legitimization of revolution: Damning the past, excusing the present, and neglecting the fu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81-290.
- Merton, R. K. (194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Antioch Review*, 8, 193-210.
- Meyerson, L.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hysical disability: 1948 and 1988.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173-188.
- Rodin, M., Price, J., Sanchez, F., & McElligot, S. (1989). Derogation, exclusion, and unfair treatment of persons with social flaws: Controllability of stigma and the attribution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439-451.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 whole No. 609).
- Shrauger, J. S., & Schoeneman, T. J. (1979). Symbolic interactionist view of self-concept: Through the looking glass darkly. *Psychological Bulletin*, 86, 549-573.
- Taylor, S. E., Wood, J. V., & Lichtman, R. R. (1983).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 1940.
- Triandis, H. C. (1964).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London: John Wiley & Sons Inc.
- Triandis, H. C. (196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component of social attitudes. *Journal of*

-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420-430.
- Weiner, B., Perry, R., & Magnusson, J. (1988).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stig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38-748.
- Westie, F. R. (1952). Negro-white status differential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5), 550-558.
- Westie, F. R. (1959). Social distance scales: A tool for the study of stratification.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43, 251-258.
- Willy, N. R., & McCandless, B. R. (1973). Social stereotypes for normal educable mentally retarded, and orthopedically handicapped childre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7, 283-288.
- Wood, P. H. N. (198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 A manual of classifications relating to the consequences of diseas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차 원고 접수 : 2001년 2월 17일
최종 원고 접수 : 2001년 3월 31일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oward Social Stigmatized Groups

Kwan Jae Song Young-Oh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Jae Chang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Taej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general public's stereotype toward social stigmatized group, to consider the degree and effect of stereotypes for social stigmatized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he lay person and the stigmatiz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2 university students, 255 lay person, 22 crippled, 16 prostitutes. In this study, an attempt was made to examine one's subjective social distance toward members of diverse stigmatized social groups. The social distance scale consisted of interpersonal physical distance and interpersonal social distan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drug addicts, prostitutes, ex-convicts, among people included in this study as stigmatized individuals were least acceptable. This study examined subject's preferences in two different dimensions: visibility and controllability. The result shows that subject most hate people who belong nonvisible and controllable stigmatized types. This suggests that subjects most hate people in stigmatized group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stigmas. But prostitutes are found to be different in recognizing the sense of social distance. The responses show that they regard alcoholics, visual and listening disabled, and mentally disabled as less close than the other socially stigmatized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different in self defence mechanism for self-respect and social comparison process between lay person and people with social stigma.